

# 과학의 이름으로 중독을 강요하는 책들

## 빈약한 논거와 왜곡된 주장으로 독자 혼란 초래

주일우

문화평론가

최근에는 만화나 대중소설이 문화비평의 주요한 대상으로까지 부상했고, 대체로 평론가들은 리얼리즘을 실현한 작품들에 높은 점수를 주는 편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황당무계한 내용을 담은 것들이 더 좋다. 내게 만화는 고단한 현실의 도피처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이런 도피처들을 한 둘씩 갖고 있으리라.

### 비현실적 공간으로의 도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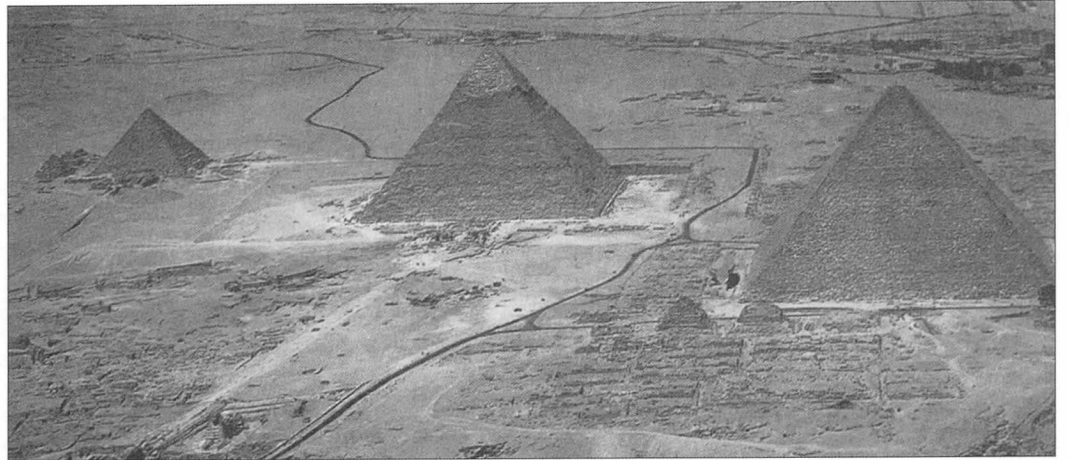
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비밀스런 공간을 하나쯤 갖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쥬라기 공원》, 《개미》, 《신의 지문》, 《람세스》 등을 그런 공간을 열어준 대표적인 책들로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웅문》을 필두로 수면 위로 떠오른 고만고만한 무협지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가끔 꿈을 꾸게 마련이고, 꿈을 꾸는 데 이런 책들이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면 내용이 허황하다고 해서 굳이 이런 책들을 즐기는 사람들을 탓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꿈의 규칙과 현실의 규범을 혼동한다면 문제가 된다. 이런 혼란이 심해져서 꿈이 현실을 대신할 정도가 되면 퇴행성 정신병에 이르게 되고, 거기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경우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게 만든다. 물론, 대부분의 독자들은 자신들이 읽고 있는 이야기가 허구이며, 잠시 쉬다가 다시 고단한 현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몇몇 책들은 빈약한 근거에 바탕해서 그 책이 담고 있는 꿈이 사실이라고 주장해 사람들을 헛갈리게 만들곤 한다. 이런 주장은 사이비종교의 주장과 다를 바 없고, 그것이 미치는 나쁜 영향도 그에 못지않다.

소설은 어차피 허구임을 전제로 하니까 제쳐두고, 형식이 조금 다른 《신의 지문》을 살펴보자. 우선 책의 표지를 넘기면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꽤 학문적으로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할 듯한 저자의 약력이 나오고, 과학적인 사실들에 근거한 다큐멘터리로 분장한 내용이 나온다. 내용의 줄기는, 과거에 위대한 문명이 존재했는데, 대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흔적이 지워졌

20세기말 신비주의에 관련된 책과 영화들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런데 몇몇 책들은 빈약한 논리전개에 과학의 이름을 덧씌워 상상과 사실을 혼동시키면서 과학의 이름으로 중독을 강요하고 있다.



다는 것이고, 마지막엔 그 이야기에 권위를 덧입힐 요량으로 제법 긴 참고문헌이 붙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어린 시절 소년잡지에 단골 메뉴로 실리던 고대문명의 수수께끼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사실 우리가 과학을 통해 먼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적다. 그런데도 저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논리 전개에 과학의 이름을 덧씌워 놓고서 우리 문명도 고대문명처럼 자연재해에 의해 휩쓸려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선부른 결론까지 내리고 있다.

### 빈약한 근거로 사실 호도

‘미래를 밝히는 외계문명 시리즈’ 같은 책들은 《신의 지문》이 보여주는 약간의 조심성마저 없이 “지구는 우주의 모든 문제들이 어우러져 풀리는 곳”이며 “지구와 우주의 완성과 통합”을 시도한다는 식의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추세인 신과학 운동의 흐름을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일별”해 보겠다는 것이다. 책의 곳곳에 ‘진실’이나 ‘사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책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신과학 서적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소개되었다.

프리츠프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과 《새로운 문명과 문명의 전환》 대표작인데, 그는 버틀러의 일반 시스템 이론,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 그리고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카오스 이론 등을 끌어들이어 현대물리학의 성과를 종합해 이를 도가류의 동양사상과 연관을 지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카프라는 원래의 이론을 과학적 논증이 아닌 단순한 개념의 유비 수준에서 사용하거나, 지나친 해석

을 하고 있을 뿐이면서도 현대과학의 성과들이 자신의 주장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처럼 왜곡한다.

현대과학의 부작용들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이 신과학 운동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신과학 운동은 결코 대세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신과학 운동을 바탕으로 하면서, 어찌보면 거기서도 논리적 비약을 서슴지 않는 책들이 과연 ‘진실’이나 ‘사실’을 밝혀 줄 수 있을까?

근대 이후, 대공업적인 생산방식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유리되어 단순한

반복 작업에 투입되었다. 가끔 꿈을 꾸지 않고서는 배겨내기 힘든 환경에 사람들이 놓이게 된 것이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의 사람들은 ‘소마’란 마약을 통해 꿈을 꾸고 현대인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꿈꾸기를 대신한다.

《멋진 신세계》의 지배자들이 제공했던 마약에 중독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몇몇 책들은 상상과 사실을 혼동시키면서 과학의 이름으로 중독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잊지 말자. TV 속의 공주병 환자는 코미디의 주인공이지만 현실의 공주병 환자는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

###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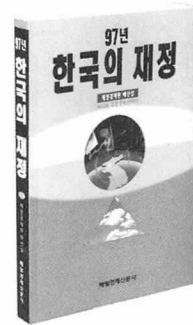
## 정부의 나라살림 보고서

재정경제원 예산실 《97년 한국의 재정》

국민이 꼬박꼬박 내는 세금은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에 쓰인다. 우리나라 1년의 예산 규모는 약 1백억원. 재정경제원의 예산실에서 보통 6월부터 착수해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예산편성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약 100일간. 하루 평균 약 1조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셈이다.

최근 재정경제원 예산실의 실무자들이 직접 집필한 《97년 한국의 재정》은 단순한 정부의 홍보책자를 넘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꾸러나가고 있는지 조목조목 일러준다. 김성진 예산정책과장과 담당서기관, 사무관 등 20여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모두 3부로 나뉘 1부에서는 재정의 개념



과 역할, 재정운영, 예산 편성에서 결산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2부에서 97년 예산 정책의 방향과 주요 분야별 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가운데 문화 체육 분야는 96년보다 49.1% 증가한 5,624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예산 구성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체육진흥비와 청소년 육성비를 합한 예산액인데, 체육진흥비는 지난해보다 138% 증가한 반면, 문화예술진흥비는 30.4% 증가한 데 그쳤음을 알 수 있다. 3부는 주로 국민경제 전체 운영과 관련해 재정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이론을 알기 쉽게 서술했다.

매일경제신문사/A5신/330면/9000원